

Neutral
(Maintain)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 최종 대미 관세율은 여전히 15%



한국, 일본, EU는 대미 자동차 수출 품목관세율 15%를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유의미한 반응은 없는 형국이 지속 중이다. 2.5%p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일본, 독일계 완성차마저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EU와는 달리 상호관세율이 기존 관세에 대한 '추가' 개념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떠오르면서 일본 자동차 섹터 주가는 이번 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일본의 '추가 15%' 논란에서 자동차는 예외일 것으로 판단

22일에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의 결과로 일본의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관세율이 총 15%(12.5%+2.5%)로 확정됐다고 알려졌으나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상호관세율 15%가 '기존 관세에 추가' 개념이라는 표현이 담긴 7월 31일자 백악관 문서가 배포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은 추가 15%의 예외 항목이다. 즉 일본산 자동차의 최종 대미 수출 관세율은 기존에 알려진 그대로 여전히 15%(12.5%+2.5%)가 될 예정이며, 17.5%(15.0%+2.5%)로 해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백악관이 7월 31일에 게시한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의 첨부 문서(ANNEX II)에 기재된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15%'이라는 문구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다. 기존에 품목별로 부과되고 있던 기본관세율에 일본이 무역협상을 통해 확보한 상호관세율 15%가 덧붙여진다는 의미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Heading 9903.01.25 of the HTSUS shall be amended by deleting the article description and by inserting "Articles the product of any country, except for products described in headings 9903.01.26–9903.01.33, 9903.02.02–9903.02.71, and 9903.96.01, and except as provided for in headings 9903.01.34 and 9903.02.01'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2025년 4월에 백악관 배포 문서(ANNEX III)에 따르면 9903.01.33은 철강·알루미늄 또는 그 파생품, passenger vehicles & light trucks 또는 그 부품을 포함하는 heading이다.

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추가 15% 부과 대상에서 예외 분류된 것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섹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관세 관련 가격 경쟁력 구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2.5%p 상대적 가격 경쟁력 약화 & 민간 투자 영역의 불확실성을 반영' 보고서 참조, 2025년 8월 1일 발간).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4월 3일부터) 및 자동차부품(5월 3일부터)이 미국 수출 과정에서 적용 받고 있었던 25%의 품목관세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025년 8월 7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것임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문화 됐던 케이스와는 달리 현재 한국, 일본, EU 모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신규 품목관세율(한국 15%)의 적용 개시일에 대해서는 아직 백악관과 명문화하지 못한 단계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7월 31일자 백악관 배포 문서: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15%

9903.02.30	Except for goods loaded onto a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and in transit on the final mode of transit before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August 7, 2025, and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before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October 5, 2025, except for products described in headings 9903.01.30–9903.01.33, and except as provided for in headings 9903.01.34 and 9903.02.01, articles the product of Japan, as provided for in subdivision (v) of U.S. note 2 to this subchapter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15%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15%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	--	--	--

자료: 백악관, 키움증권 리서치

9903.01.33: 품목관세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포괄

9903.01.33	Articles of iron or steel, derivative articles of iron or steel, articles of aluminum, derivative articles of aluminum, passenger vehicles (sedans, sport utility vehicles, crossover utility vehicles, minivans, and cargo vans) and light trucks and parts of passenger vehicles (sedans, sport utility vehicles, crossover utility vehicles, minivans, and cargo vans) and light trucks, of any country, as provided in subdivision (v)(vi) through (v)(xi) of note 2 to this subchapter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	--	--	--

자료: 백악관,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